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 이용양상에 관한 연구 - 수도권 거주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

남 혜 현*

* 수원여자대학 간호과 조교수

A Study on the Using Patterns of Alternative Therapy in Arthritic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Nam, Hey-Hye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sing pattern of alternative therapies in chronic arthritics. **Method:** We interviewed 192 Arthritis patients lived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ugust to september in 2004.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by using SPSS program. **Result:**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89.0% of subjects had utilized one or more types of alternative therapies. 80.8% of these patients did not consult a nurse or doctor with using alternative therapies. 2. 87.7% of subjects obtained information of using the alternative therapy from similar patients, their families or relatives etc.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s of alternative therapies are hand acupuncture(58.0%), bathing(29.6%), massage(25.4%), taping therapy(13.0%). 3. After using alternative therapies, over 80% of subjects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to effects of alternative therapies and only 9.4% of them responded that they experienced side effects from use of alternative therapies.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ost of patients with arthritis have used alternative therapies, they were satisfied to effect of using alternative therapies. Therefore, many research for use of alternative therapy and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protocol of nursing intervention applying alternative therapy need to be achieved.

Key words : Arthritics, Alternative Therap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Nam, Hey-Hyeun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Kwonsun-Gu, Suwon, Kyonggi-Do 441-748, Korea

Tel: +82-31-290-8111 Fax: +82-31-290-8142 E-mail: inamhh@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관절통이나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틀어서 관절염이라 한다. 증상은 대개 만성적으로 나타나며 가장 흔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절염 환자들은 대부분 기능적 장애와 생활양식의 변화 및 심각한 통증으로 인해 독립성이 상실되며 통증, 관절 경직, 허약감은 여가 활동이나 일,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자존감 저하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Kim & Sohng, 1991; Mackinin, Avison, & McCain, 1994). 이처럼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성관절염에 대해서 정통의학은 꾸준한 연구와 많은 경험축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만성관절염의 완치율은 기대이하로 낮고 높은 유병율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45세 이상 성인의 관절염 유병율은 22.6%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1,000명당 429명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Health and Social Affairs, 1999; Park 등, 2004).

위와 같은 유병율에서 나타난 것처럼 관절염 환자들은 질병완치를 위해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여러 증상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경우 현대 의학에 한계를 느끼게 되며, 통증완화 또는 질환 완치의 희망을 가지고 다른 치료방법으로서 대체요법을 찾게 된다

(Hawley, 1984; Sohng, 2002).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Kim & Kang(1999)의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의 96.6%가 통증 조절을 위해 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ee(2001)의 연구에서는 만성 관절염 환자의 77.5%가 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절염 환자가 대체요법을 접하게 되는 경로를 보면 주변의 친지, 동료,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의 소개를 통해서 이며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의 권유로 대체요법을 접하게 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대체요법을 접하게 된 관절염 환자들은 대체요법 이용에 따른 비효율성, 고비용,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중단에 따른 질병악화 등 문제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Eisenberg, 1996; Lee & Son, 2002) 다수의 관절염 환자는 대체요법의 이용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효과와 만족을 경험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Lee, 2001; Shin, Park, & Shin, 2004).

만성 관절염 질환에 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간호계에서는 만성관절염 질환의 대체요법에 대한 간호학적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대체요법의 연구가 이용실태 조사 등에 머무르고 있어 대체요법을 적용한 간호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절염 질환에 효과가 있는 대체요법을 발굴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적용했을 때 고통경감과 증상완화 등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 관절염 환자가 대체요법을 찾는 이유와 그 경로, 많이 이용하는 대체요법의

종류 및 효과 등 대체요법 이용양상을 파악하여 향후 만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관절염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관절염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관절염환자가 사용하는 대체요법 종류와 그 효과 등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대체요법

보완·대체요법은 환자의 자연적 소생 능력을 강화시키고 보완해 줌으로써 본래의 면역성을 발휘하게 하는 치료로, 화학적 의약품보다는 자연적이거나 자연 산물에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는 요법으로서(A Society for the Study of Alternative & Complementary therapy, 2002; Park 등, 2004), 단일한 요법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것이 다른 요법과 서로 조정·중재되었을 때 들은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서양의 전통 의학을 지원하거나 보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요법(Vickers, 1996; Shin 등, 2004)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전통 의학에서 사용 또는 승인되지 않았으나 질병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행해지는 대체·보완적 치료방법을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관절염을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

로 대체요법 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수원시 소재 L병원, H병원, O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관절염 환자와 의사로부터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소재 보건소와 복직관 재활운동 치료실 및 의료체험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관절염 환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환자 192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 이용양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여 간호학 교수 1인, 전문인 1인의 지도를 받아 문항의 어휘를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일반적 사항 7문항, 질병의 특성 7문항, 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사항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체요법 이용양상은 대체요법의 이용 경험, 이용기간, 이용 장소, 대체요법에 지출되는 비용, 전문가와의 상담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체요법 종류, 관심을 갖은 시기, 찾게 된 이유, 접하게 된 경로, 사용 후 실제 좋아진 점, 만족도, 부작용, 앞으로 대체요법 이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8월 10일에서 2004년 9월 20일까지이며, 해당 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일대일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대상자의 충실한 설문응답을 위해 연구보조원으로

간호와 학생을 훈련시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7.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및 대체요법의 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2.5%, 여자가 87.5%를 차지하였다. 연령분포는 39세 이하가

2.5%, 40-59세가 25.0%, 60-69세가 34.9%, 70세 이상이 37.5%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65.4세였다. 교육정도는 초등 졸업 이하가 58.3%, 중졸 17.2%, 고졸이 16.7%, 전문대졸 이상이 7.8%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58.3%, 미혼 3.1%, 사별 37.0%, 이혼 1.6%이었다. 종교는 불교 28.1%, 기독교 24.5%, 천주교 16.7%, 기타종교 2.1%, 무교가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20.3%, 없는 경우가 79.7%로 대상자의 대부분 직업이 없었다. 월수입은 39만원 이하가 48.9%, 40-99만원이 17.7%, 100-199만원은 21.3%, 200만원 이상은 12.1%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76.68만원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192)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24	12.5
	Female	168	87.5
Age (years)	39 under	5	2.6
	40-59	48	25.0
	60-69	67	34.9
	70 over	72	37.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Under	112	58.3
	Middle school graduate	33	17.2
	High school graduate	32	16.7
	College and over graduate	15	7.8
Marital status	Married	112	58.3
	Unmarried	6	3.1
	Bereaved	71	37.0
	Divorced	3	1.6
Religion	Buddhism	54	28.1
	Catholic	32	16.7
	Christ	47	24.5
	Others	4	2.1
	None	55	28.6
Occupation	Yes	39	20.3
	No	153	79.7
Monthly income (10,000won)	39 under	94	48.9
	40-99	34	17.7
	100-199	41	21.3
	200 and over	27	12.1

2. 질병관련 특성

진단받은 관절염은 퇴행성 골관절염이 66.1%로 가장 많았고 류마티스 관절염 22.9%, 통풍성 관절염 2.1%, 기타 8.9%였다. 기타에는 섬유조직염, 당뇨병성 관절염, 교통사고 후 다발성 관절증 등이 포함되었다. 질병이환기간은 평균 10.58년이었으며, 1년 미만이 14.6%, 1-5년 미만이 25.5%, 5-10년 미만이 28.2% 그리고 10년 이상이 31.8%로 가장 많았다. 입원경험이 있는 경

우는 23.4%, 없는 경우는 76.6%이었다. 관절염으로 수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1.5%, 경험이 없는 경우는 88.5%로 대부분 입원 및 수술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부위가 어디인가에 대한 개방성 질문에서는 무릎이 83.3%로 가장 많았으며, 허리 15.1%, 손가락 14.6%, 어깨 7.8%순이었다.

또한 현재 관절염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0%가 통증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관절염 대상자

<Table 2> Disease - related characteristics (N=192)

Variable	Category	N	(%)
Type	Degenerative arthritis	127	66.1
	Rheumatic arthritis	44	22.9
	Goutic arthritis	4	2.1
	others	17	8.9
Duration	1year under	28	14.6
	1-5years	49	25.5
	5-10years	54	28.1
	10years and over	61	31.8
Admission experience	Yes	45	23.4
	No	147	76.6
Operation experience	Yes	22	11.5
	NO	170	88.5
Region of arthritis*	Knee	160	83.3
	Waist	29	15.1
	Finger	28	14.6
	Shoulder	15	7.8
	Wrist	8	4.2
	Ankle	8	4.2
	Whole body	7	3.6
	Elbow	5	2.6
Difficulty related to arthritis*	Pain	94	49.0
	Inconvenience of daily life	53	27.6
	Stiffness	36	18.8
	Fatigue	25	13.0
	Transformed body	13	6.8
	Economical problem	10	5.2
	Others	14	7.3
	Degree of pain (1-10point)	0	11
1-3		61	31.8
4-6		84	43.8
7-10		36	18.7

* The multiple response

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상생활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7.6%, 뻣뻣한 느낌은 18.8%, 피로감은 13.0%, 변화된 신체상은 6.8%, 경제적 문제는 5.2%, 기타가 7.3%였다. 통증정도는 최소를 0점으로 최고를 10점으로 정했을 때 통증이 없는 경우(0점)는 5.7%, 약간 아픈 경우(1-3점)는 31.8%, 많이 아픈 경우(4-6점)는 43.8%, 매우 아픈 경우(7-10점)는 18.7%를 차지하였으며 통증의 평균은 4.97점이었다(Table 2).

3. 대체요법 이용에 관한 특성

1) 대체요법 이용율 및 이용형태

대체요법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89.0%가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요법을 이용한 기간은 1년 미만이 21.6%, 1-5년 미만이 49.1%, 5년-10년 미만이 15.8%, 10년 이상이 13.5%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4.17년이었다. 또한 대체요법에 소요된 월평균 비용은

5.04만원으로 1만원 이하가 10.5%, 2만원 이하가 4.7%, 5만원 이하가 15.8%, 5만원 이상은 24.5%였으며 무료라고 응답한 경우도 44.5%에 달하였다. 이는 무료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대다수가 보건소나 복지관 또는 의료체험실에서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집 28.1%, 한방병원 17.0%, 보건소, 구청 내 재활운동실이 10.5%, 양로원이나 복지시설이 9.9%, 병원이 2.9%, 기타가 31.6%였다.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의료기 체험실, 양로원, 복지관, 찜질방 등 대체요법 방법만큼 그 장소도 다양하였다. 대체요법 이용에 관해 전문가와의 상담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9.2%가 상담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한번 상담경험이 있다가 31.6%, 자주 상담 한다가 19.2%로 나타나 대부분이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대체요법 이용 동기 및 이유

<Table 3> Using pattern of alternative therapies

(N=192)

Variable	Category	N	(%)
Experience of use	Yes	171	89.0
	No	21	11.0
Period of use	1year under	37	21.6
	1-5years	84	49.1
	5-10years	27	15.8
	10years and over	23	13.5
Monthly average expense (10,000won)	Free	76	44.5
	1 Under	18	10.5
	1- 2	8	4.7
	3-5	27	15.8
	5 over	42	24.5
Place using alternative therapy	House	48	28.1
	Herb clinic	29	17.0
	Public health center	18	10.5
	Asylum for the aged or welfare facilities	17	9.9
	Hospital	5	2.9
	others	54	31.6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s	None	84	49.2
	Once	54	31.6
	Sometimes	33	19.2

대체요법에 관심을 갖은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진단 받은 후 질병이 악화되면서가 45.0%로 가장 많았고 진단 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면서가 33.4%였으며 진단받자마자 21.6%로 나타났다. 대체요법을 찾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완화될 것 같아서가 52.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질병을 낮기 위한 방법으로 22.8%, 병원 치료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8.2%, 치료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6.4%, 대체요법 자체에 대한 신뢰 때문에 2.3%, 재활치료를 위해서 2.3%, 기타 5.4% 순이었다.

대체요법을 접하게 된 경로는 38.8%가 같은

질병 환자의 권유와 소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족 및 친척의 소개로 18.1%, 대상자 스스로 13.5%, 의사나 간호사의 권유로 12.3%, 대중매체를 통하여 7.6%, 보건소 소재 재활 운동실에 참여하여 알게 된 경우가 1.8%, 기타 3.4%로 조사되었다(Table 4).

3) 이용하는 대체요법 종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체요법 유형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수지침, 뜸이 5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목욕요법 29.6%, 마사지 요법 25.4%, 테이핑 요법 13.0%, 단전 및 기공

〈Table 4〉 Motive of use of alternative therapy (N=171)

Variable	Category	N	(%)
Time of concern about alternative therapy	After disease getting worse	77	45.0
	In one year after diagnosis	57	33.4
	As soon as diagnosis	37	21.6
Motive of use	For relieving symptoms	90	52.6
	For complete cure of disease	39	22.8
	Due to low effect of medical treatment	14	8.2
	For advancing treatment duration	11	6.4
	Due to trusting alternative therapy	4	2.3
	For rehabilitation	4	2.3
	Others	9	5.4
Source of information	Similar patients	65	38.0
	Family or relative	31	18.1
	For oneself	23	13.5
	Doctor or nurse	21	12.3
	TV, radio, newsletter, internet	22	12.9
	Public health center, Physical therapy room	3	1.8
	Others	6	3.4

〈Table 5〉 Kind of alternative therapy (N=171)

Variable	Category	N	(%)
Kind of using alternative therapy*	Hand acupuncture	98	58.0
	Bathing therapy	50	29.6
	Massage therapy	43	25.4
	Taping therapy	22	13.0
	Music therapy	8	4.7
	Hypogastric breathing, Qigong therapy	8	4.7
	Relaxation, Imagery	6	3.6
	Aroma therapy	3	1.8
	Others	65	33.8

* The multiple response

4.7%, 음악요법 4.7%, 이완 및 심상요법 3.6%, 아로마 1.8%, 기타 33.8%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방법을 알아보면 대상자들은 부황, 홍화씨, 옥매트, 전기치료, 원적외선, 건강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4) 대체요법 이용 효과

대체요법 사용 후 실제로 좋아진 점을 알아보는 개방성 질문에 대해서는 69.0%가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보행증진 30.4%, 심리적 안정 26.3%, 체력 증진 10.5%, 부종감소 12.3%, 치료에 대한 희망 9.9%, 약복용으로부터의 해방감 2.9%, 일상생활 가능 2.3%순으로 나타났으며,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1.1%였다.

대체요법 사용 후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한다가 56.7%, 매우 만족한다가 24.0%였으며, 불만족하다는 18.0%, 매우 불만족하다는 1.3%로 대체적으로 많은 대다수 관절염 환자들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요법 사용 후

부작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부작용 경험이 있다 9.4%, 부작용 경험이 없다 90.6%로 대부분 별다른 부작용 없이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앞으로 대체요법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1.3%가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6).

IV. 논 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89.0%가 관절염 진단을 받은 이후 한번 이상 대체요법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대체요법 이용율은 Kim과 Kang(1999)의 연구에서 만성관절염 환자의 민간요법 이용율이 96.6%였고 Park 등(2003)의 연구에서 노인 관절염 환자의 대체요법 이용율이 94.2%로 나타났으며 멕시코의 류마티스 질환자의 대체요법 이용율이 83%였던 Ramos-Remus 등(1998)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범주의 이용율을 보였다. 다만 각 연구 간에 이용율이 다소 차이를 보

<Table 6> The effect of alternative therapy (N=171)

Variable	Category	N	(%)
Effect after use of alternative therapy*	Relieved pain	118	69.0
	Increased gait	52	30.4
	Psychological stabilization	45	26.3
	Decreased edema	21	12.3
	Physical promotion	18	10.5
	Hope to cure	17	9.9
	Feeling of freedom from taking medicine	5	2.9
	No effect	19	11.1
	Others	4	2.3
Satisfaction degree	Very satisfactory	41	24.0
	Satisfactory	97	56.7
	Dissatisfactory	31	18.0
	Very dissatisfactory	2	1.3
Side effect	No	155	90.6
	Yes	16	9.4
Use plan of alternative therapy	Yes	139	81.3
	No	32	18.7

* The multiple response

인 것은 노인 관절염 환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만성관절염 환자등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다소간의 이용을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체요법을 이용한 기간은 1-5년이 49.1%, 1년 미만이 21.6%, 5년-10년 사이가 15.8%,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3.5%였으며 평균 4.17년이였다. 이것은 대체요법의 이용 결과 효과가 없는 대상자들이 기간 경과에 따라 대체요법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체요법에 소요된 비용은 월 평균 50,400원이었으며 무료라고 응답한 경우도 44.5%에 달하였다. Lee(2001)연구에서 월 평균 지출비용이 94,100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 복지관 내 재활 운동실 참여 및 의료체험실을 이용하면서 무료 치료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대상자의 모집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요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용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는 45.0%가 진단 받은 후 질병이 악화되면서라고 응답하였고, 진단 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33.4%, 진단받자마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21.6%였다. 이것은 Lee(2001)의 연구에서 진단을 받자마자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요법을 추구하게 된 이유를 보면 52.6%가 증상이 완화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질병을 낮기 위한 방법을 찾아 22.8%, 병원 치료의 효과가 낮아서 8.2%순으로 대부분 증상완화 또는 완치를 위해서 대체요법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치와 증상완화를 위해 대체요법을 이용한다고 보고한 Ramos-Remus 등(1998)의 연구, Shin 등(2004)의 노인의 대체요법 이용양상에 대한 조사연구 및 Lee 등(1997)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위 결과를 놓고 본다면 관절염 질환이 서양의학에 의해서는 완치가 어렵고 통증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

른 치료방법으로 대체요법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 항목에서 대체요법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대체요법을 접하게 된 경로는 같은 질병 환자의 권유와 소개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친척의 소개로 18.1%, 스스로 13.5%, 의사나 간호사의 권유로 12.3%, 대중매체를 통하여 7.6%, 보건소 재활 운동실에 참여하여 알게 된 경우가 1.8%, 기타 응답자가 3.4%였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권유로 접하게 된 경우는 12.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 관절염 환자의 78.3%가 주위사람이나 가족의 추천에 의해 대체요법을 이용한다고 보고한 Kim과 Kang(1999)의 연구 및 만성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Son과 Suh(1998)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환자의 질병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대체요법을 접하는 경로는 비슷하며 대부분이 비의료인의 권유, 스스로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용하는 대체요법의 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지침, 뜸이 58.0%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이 목욕요법 29.6%, 마사지 요법 25.4%, 테이핑 요법 13.0%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대체요법 유형도 33.8%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의 유형으로 부황, 홍화씨, 옥매트, 전기 치료, 원적외선, 건강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대체요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대체요법이 다양한 것은 대체요법의 범위와 의미를 한정하지 아니한 채 과거부터 구전에 의해서 또는 생활속의 경험으로서 유래되는 민간 치료요법 중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법이라면 통틀어 대체요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체요법의 연구와 관련하여 대체요법의 범위와 종류 등에 대해서 새로이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요법 사용 후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하다가 56.7%, 매우 만족하다가 24.0%이었

으며, 불만족하다가 18.0%, 매우 불만족하다가 1.3%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64.62%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Shin 등(2004)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만족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부작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4%,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0.6%로 대부분 별다른 부작용 없이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4%만이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Shin 등(2004)의 연구나 6%의 부작용 경험율을 보고한 Ramos-Remus 등(1999)의 연구와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대체요법 사용 후 실제로 좋아진 점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대체요법 사용 후 실제로 좋아진 점은 69.0%가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보행증진 30.4%, 심리적 안정이 26.3%였고, 체력이 증진되었다가 10.5%, 부종 감소 12.3%, 치료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가 9.9%, 약복용으로부터의 해방감이 2.9%, 일상생활 가능성이 2.3%,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1.1%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Hong (1989)의 연구결과와 Lee(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각 항목별로 비율은 다르더라도 통증완화 외에 체력이나 보행증진, 몸이 가벼워짐, 치료에 희망감, 약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감 등의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율은 매우 높았으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조언 또는 상담이 거의 없이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체요법에 대한 지각된 효과가 높은 반면 부작용 경험율은 낮고 대체요법 이용에 드는 의료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절염 환자들이 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통증완화 등 보완적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관절염 환자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체요법을 선택하여 효과와 만족을 얻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대체요법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검증이 안된 치료방법이며 오로지 정통 서양의학만을 선호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미국의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대체요법을 사용 또는 이를 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요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Lim, N. Y 등, 2001) 편견이 많이 없어지고 있으나 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관절염 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관여하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체요법의 종류별로 효과의 검증과 간호중재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관절염 환자들의 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양상과 지각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에 거주하는 관절염 진단을 받은 대상자 192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8월 10일부터 9월20일까지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 수는 192명으로 87.5%가 여성이었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5.4세였고 질병 이환기간은 10년 5개월이었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부위는 83.3%가 무릎으로 가장 많았고 통증은 평균 평점 4.9(최고 10점) 있었으며, 관절염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통증으로 대상자의 49.0%가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대상자의 89.0%가 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요법을 이용한 기간은 1-5년이 49.1%로 가장 많았고 평균 4.2년 동안 이용하였다. 그리고 대체요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평균 5만원이었으며 대상자들의 49.2%가 대체요법의 이용

에 관해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당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절염 환자들이 대체요법에 관해 관심을 갖는 시기는 관절염 진단 후 질병이 악화되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45.0%로 가장 많았고, 대체요법을 찾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완화될 것 같아서가 5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질병을 낮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22.8%가 나타나 대부분 증상완화 또는 완치를 위해서 대체요법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요법을 접하게 된 경로는 같은 질병 환자의 권유와 소개(38.0%), 가족 및 친지의 소개(18.1%)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권유로 접하게 된 경우는 12.3%에 불과하였다.
4. 관절염 환자가 이용하는 대체요법은 수지침, 뜸(58.0%), 목욕요법(29.6%), 마사지 요법(25.4%), 테이핑 요법(13.0%)순으로 나타났다.
5. 관절염 환자가 대체요법을 이용한 결과 80.0%이상이 효과에 만족하였고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9.4%에 불과하였으며 대체요법 이용 후 좋아진 점으로는 통증완화, 보행증진, 심리적 안정, 부종감소, 체력증진, 치료에의 희망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체요법의 유형별로 치료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위 대체요법의 유형별로 간호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A Society for the Study of Alternative & Complementary Therapy (2002). *Alternative & Complementary Therapy*. Seoul : Hyunmoonsa.

Eisenberg, D. M. (1996). Alternative medical therapies for rheumatologic disorders. *Arthrit Care Res*, 9(1), 1-4.

Hawley, D. J. (1984). Non traditional treatments of arthriti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9(4), 663-672.

Hong, J. J. (1989). *A Study on the Pain and Depression Degree of the Arthritis patients*, A Master's degree Thesis in the Science of Nursing.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Kim, J. I., & Kang, H. S. (1999). Self Management of Pain by Folk Remedies in Patient with Chronic Arthritis, *The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6(2), 242-252.

Kim, M. J., & Sohng, K. Y. (1991). The effects of supportive nursing care on the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of persons with rheumatoid arthritis, *Journal Korean Acad Nurse*, 21(3), 328-338.

Lee, E. N. (2001). Prevalence, Patterns of Use, and Perceived Efficacy of Alternative Therapies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The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8(2), 250-261.

Lim, N. Y., Sohng, K. Y., Hong, Y. H., Kim, J. I., Kim, G. H., Jo, N. O., Han, G. S. (2001). *Alternative & Complementary Therapy with Nursing*. Seoul : Soomoosa.

Mackinin, J. R., Avison, W. R., & Mccain, G. A. (1994). Pain and functional limitation in individuals with rheumatoid arthritis. *Inter J Rehabil Research*, 17, 49-5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Health and

- social Affairs (1999). 1998 National Health & Nutrition Survey-Health Interview Examin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Health and social Affairs*
- Park, K. S., Choi, E. H., Hwang, Y. Y., Ahn, Y. H., Chung, H. K., Paik, H. J., Ryoo, E. N., & Lee, E. O. (2004). An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Utilizing Experimental Designs. *The Journal of Reumatology*, 11(2), 136-152.
- Park, K. S., Ryoo, E. N., Moon, K. S., Lee, W. Y. & Lee, S. O., Kim, M. H., Youn, M. S., Oh, J. M., Hwang, Y. Y., & Kim, H. A. (2003).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in elder Arthritis. *The Journal of Reumatology*, 10(2), 142-155.
- Ramos-Remus, C., Gamez-Nava, J. I., Gonzalez-Lopez, L., Skeith, K. J., Pera-Navarro, A. V., Galvan-Villegas, F. & Suarez- Almazor, M. E. (1998). Use of alternative therapies by patients with rhematic disease in Guadalajara, Mexico: Prevalence, Beliefs, and Expectation. *Arthrit care and Research*, 11(5), 411-418.
- Ramos-Remus, C., Watter, C. A., Dyke, L., & Suarez-Almazor, M. E. (1999). Assessment of health locus of control in the use of nonconventional remedies by patients with rheumatic diseases. *J Rheumatol*. 26(11), 2468-2474.
- Shin, K. R., Park, S. Y., & Shin, S. J. (2004). A Study on the Use Pterns of Alternative Therapy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5(3), 111-122.
- Sohng, K. Y. (2002). A Survey on Use of Unconventional Treatments and Related Variables of Pain in Patients with Rheumatic Disease. *The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9(2), 144-153.
- Son, H. M., & Suh, M. J. (1998). A stud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in chronic liver disease, *Journal of Korea Academy of Adult Nursing*, 10(1), 134-147.
- Vickers, A. (1996). *Complementary Medicine*. London : Chapman & Hall.